

대학영어교육과 표준화 시험

이 정 원 | 충남대 영문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영어교육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나 교육 행정가, 교수, 학생 모두가 영어교육이라는 엄청난 바다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효과적이고 수월하게 살아 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한 여파가 학문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까지 파고들어, 대학영어교육에 표준화 시험(standardized tests)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언어, 특히 영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구체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영어교육과 표준화 시험의 관계, 특히 대학영어시험의 대체 방안으로서의 표준화 시험과 대학 졸업을 위한 자격요건으로서의 표준화 시험에 대해 심각하게 숙고해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고민을 통해 대학영어교육과 표준화 시험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학생 개인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과정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글에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대학영어교육에 표준화 시험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어떠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대학영어교육과 평가에 대한 개관

대학영어교육과 표준화 시험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영어교육과 평가라는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먼저 대학영어교육의 목적을 개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개념적이라고 한 이유는 교육현장에서 그 목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다는 대학영어교육을 원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개념적인,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도 있는 목적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함이다. 그 다음에는 표준화 시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평가의 목적과 그에 따른 평가 유형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평가 유형이 실제 영어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글의 화두인 표준화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대학영어교육의 개념적 목적

대학영어교육의 목적은 학교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학문의 기초적 가치로서, 학생들이 전공과

목 이수를 위한 기초로서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문장구성 활용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교양적 가치로서, 영어 사용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을 이해하여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함과 동시에, 우리의 것과 비교하듯으로서 풍부한 교양을 쌓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실용적 가치로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영어의 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종합적으로 습득하게 함으로써, 외국인과의 대화, 서신 교환, 유학, 연수, 취업 준비 등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대학영어시험을 표준화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대학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표준화 시험의 일정 점수를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학영어교육의 목적 중에서 주로 세 번째의 목적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된다. 물론 표준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학영어교육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이 일부 달성될 수는 있겠지만, 표준화 시험을 부과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세 번째 목적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표준화 시험 실시의 이유가 세 번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2) 평가의 목적과 방법

평가를 사용하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다양한 목적에 따라 평가의 방법 또한 달라진다. 교육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계이자 다음 교육을 위한 출발점을 제시하는 단계인 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에 대해 또는 학습자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에 대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교수가 다음에 지도할 내용을 선별하고 학습 활동이나 지도 기법 또는 전략 등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평가가 교수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교수 자신이 세운 교육목표에 학습자들이 얼마나 부합하도록 학습했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고, 자신의 지

도 방법이나 기술 또는 전략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게다가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되는 교육과정의 수정이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고, 또한 실제로 지도하는 교육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이끌어 가는 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진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는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학교가 제시한 일반적인 학습목표나 교수가 제시한 학습목표 또는 자신이 세운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얼마나 미진한가 등을 평가를 통해 조명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평가의 결과를 충분히 분석해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계기로 삼아 다음 학습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자신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학습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목적에 따른 평가 유형 중에서 성취도 평가(achievement test)와 숙달도 평가(proficiency test)가 있다. 성취도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분량의 교육이 끝난 후에도 학습자들이 교사가 지도한 내용을 잘 학습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이러한 유형의 평가는 교사의 교육목적과 교수 자료, 또는 학습 상황에 따라 한 평가와 다음 평가 사이의 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교사 자신이 만든 테스트가 사용되며, 이러한 테스트는 교사가 직접 지도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숙달도 평가는 일반적인 언어지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평가로서, 성취도 평가와는 달리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한 평가 유형은 교과과정에 대한 평

가나 특정 학습자 집단을 전체적인 표준 집단과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몇 년에 걸쳐 시행된 평가에서 얻은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교육의 질과 주안점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숙달도 평가는 표준화 평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흔히 알려져 있는 TOEFL, TOEIC, OPI 같은 평가가 이 유형의 대표적 평가이다.

목적에 따른 평가 유형 외에 언급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유형은 결과 해석에 따른 평가 유형으로, 크게 표준-참조(norm-referenced) 평가와 기준-참조(criterion-referenced) 평가가 있다. 표준-참조 평가에서 테스트의 점수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그 테스트에서 얻은 점수와 관련해서 평가 결과가 해석되는 반면, 테스트의 점수가 특정 수준이나 능력의 영역과 관련해서 해석될 경우는 기준-참조 평가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표준-참조 평가는 숙달도 평가와 그리고 기준-참조 평가는 성취도 평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평가 결과를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나 표준 그룹의 수행 정도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표준-참조 평가는 학습자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이 평가에서 표준 그룹은 우리가 실제로 평가하고자 하는 학습자들과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들의 수는 대단위이어야 한다(1,000명이나 그 이상).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그러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비교 역시 가능하다. 이 평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미 검증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고, 학습자의 언어 능력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단점은 표준 그룹이 변하면, 표준도 변하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표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평가 결과는 교육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

기준-참조 평가는 일정한 교육이 이루어진 후, 그 교육의 목적을 학습자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로서, 교육목적과 반드시 완벽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다른 학습자들의 성취 정도와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표준-참조 평가와는 달리 미리 교육목적에 명시된 교과 내용 영역을 학습자가 얼마나 충분히 학습했는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이 평가의 단점은 우선 측정된 목적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학습자와의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단점은 기준(criterion)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실제로 상당히 임의적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언어교육 상황에서 기준-참조 평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준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사실상 이 평가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또한 기준을 성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평가가 과연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어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3) 기존 평가방법의 실태

영어능력의 평가와 관련해서 대학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이수할 필요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로, 주로 영어관련 학과에 의해 개설되는 영어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대개 평가의 내용, 방법, 결과 해석 등을 교수의 재량에 맡기면서, 기준-참조 평가의 특성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과목과 담당 교수, 그리고 수강 학생에 따라 테스트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방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해진 학기 동안 교수가 지도한 수업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교수의 재량에 따라 학습자의 성취도를 비공식적인(informal) 방법으로 평가하게 된다.

교과목 외의 강좌로 언어 훈련을 위해 교내의 별도 기관에 의해 개설되는 영어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영어능력은 대개 다음 단계로의 이동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배치평가의 특성을 활용하는 숙달도 평가방식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강좌의 일반적인 목적은 일정 내용을 교수하고 학습하기 위한 학과목 강의와는 달리 특정한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숙달도 평가방식이 평가의 목적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강좌의 특성에 따라 성취도 평가와 숙달도 평가방식을 혼용할 수도 있다.

4) 표준화 시험

표준화 시험은 숙달도 평가와 더불어 특히 표준-참조 평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그 특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이 테스트는 우선 고정되고 표준화된 내용에 근거한다 ② 이 테스트는 시행과 채점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가 있다 ③ 이러한 유형의 테스트는 이미 철저하게 여러 번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이 잘 파악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실제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영어관련 표준화 시험으로는 우리나라의 수능능력고사과 TEPS, 그리고 외국의 SAT, TOEFL, TOEIC, GRE, OPI 등을 들 수 있다.

표준-참조 평가의 대표적 유형으로서의 표준화 시험은 표준-참조 평가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데, 그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이 시험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목적이 특정 수준의 능력이나 특정 내용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기획되고 개발되는 기준-참조 평가와는 달리, 개별 시험자간의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되고 개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를 위한 평가 항목들은 그 평가를 훌륭하게 치른 학습자와 그렇지 않은 학습자를 얼마나 잘 변별할 수 있는가에 따라 선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얻어진 점수는 같은 평가를 치른 다른 학습자들의 수행 정도와 비교해서 해석하게 된다.

표준화 시험 자체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는 많은 연

구와 실험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적인 맥락에서 과연 이러한 표준화 시험에서의 좋은 점수가 반드시 학습자의 훌륭한 영어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표준화 시험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보여 주듯이 일반적으로는 표준화 시험에서의 높은 점수와 학습자의 훌륭한 영어능력 간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널리 퍼지게 된다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면, '무조건 점수만 올려 주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한 사립학원의 TOEIC 강의에서는 '어떨 때는 긴 문장이 답'이고, '어떨 때는 접속사가 있는 문장이 답'이라는 식의 시험 기법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의 파급이 단순한 우려만은 아닌 것 같다. 일반적인 영어능력을 측정하는 상당히 믿을 만한 도구로 알려져 있는 표준화 시험이 기획·개발될 당시의 의도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즉 표준화 시험의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어능력과 교육, 그리고 평가에 대한 인식의 제도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보조 장치가 연구·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3. 대학영어교육에서의 표준화 시험의 적용 방안

요즈음 대학영어 교육에서 표준화 시험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다. 하나는 전공 또는 교양 교과목으로서 영어시험을 표준화 시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며, 다른 하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체적인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 졸업 자격요건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 시험 점수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두 방안에 대한 이론적·현실적 타당성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1) 대학영어시험의 대체 방안으로서 표준화 시험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전공과목으로 설치되어 강의하고 있는 대부분의 영어관련 과목들은 그 제목과 교수 범위, 그리고 평가방법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설강되고 있는 일반적인 영어관련 교과목들의 공통점을 평가와 관련해서 찾아본다면, 일정 기간 동안 교수가 학습자에게 가르친 내용을 학습자가 얼마나 학습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를 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유형의 평가를 성취도 평가라 부른다는 것을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교과목의 목적이나 교수 내용, 그리고 평가방법에 있어서의 다양성은 분명히 어떤 한 특정한 평가방식으로 포괄할 수 없는 예외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학에서 실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영어관련 교과목의 수업과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교수의 재량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교수들은 대개 교과내용과 관련해서 스스로 기획·고안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학습자의 영어능력 향상 정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성취도 평가가 갖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평가방식을 표준화 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찬반론을 펴기에 앞서 이러한 평가방식 전환이 교육현장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에게 가져올 결과와 그에 따른 파급효과를 예측해 봄으로써 각 대학이 당면한 상황에 따라 영어관련 교과목의 평가방식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표준화 시험을 이용해서 교과목 평가를 대신할 경우 운영방식이 학교마다 학과마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전형적인 운영방식, 즉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결과 해석과 보고, 관리 등이 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교수는 우선적으로 시험에 대한 모든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내용 연구, 교재 개발 및 선정, 수업 진행에서의 적절한 피드백 제공 등을 위한 수업 준비 작업과 함께, 이미 출제되었거나 앞으로 출제될 표준화 시험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 보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이 수반됨으로써 교수되는 내용과 평가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수 내용에 대한 평가의 내용 타당도와 평가가 교육내용에 미치는 내용과 관련되는 washback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분석 작업을 통해 수업의 내용과 범위를 반드시 평가의 내용과 범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경우, 수업의 내용과 평가의 내용이 전혀 별개라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며, 교육 자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원리적인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교수들이 이러한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평가와 항목 분석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지식을 갖추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결국 대학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이 일정한 교수들에 의해서, 그들이 개발하거나 적어도 선정한 교육내용과 자료를 가지고 학습자를 지도해야 한다고 볼 때, 평가를 위해서 표준화 시험을 도입한다는 것은 교수들에게는 한층 더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과목에 대한 평가가 표준화 시험을 통해 이루어질 때, 우선 일부 학생들이 보일 교과목 강의에 대한 일탈적인 태도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과 관련성이 많이 없다고 여겨지는(또는 실제로 관련성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 평가방식으로 인해, 수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 강의에 출석하고 또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하는 자세가 결여될 것이다. 학생이 강의를 수강하는 절대적인 목적 중 하나는 분명히 좋은 평가 결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수업과 평가가 별개라는 인

식이 생기게 되면 수업에 대한 기대감과 열의가 반감될 것이고,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심적, 물적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평가와 교과목간의 관계를 차치하고 생각해 보면,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기회를 찾고 또 학습을 수행할 것이므로 전반적인 언어능력 향상에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관건은 대학에서 설강하는 교과목의 수강을 통해 학습자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현 대학 체제에서, 학습자의 영어능력 향상이라는 절대 명제를 구현하기 위해 과연 평가와 교과목간의 관계를 제쳐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몇몇 대학에서는 정규 교과목으로 TOEFL이나 TOEIC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의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표준화 시험이 교과목 시험을 대체하게 되면, 교과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대학당국에서는 교육목적의 재조정이나 획기적인 변화를 일구어 내야 한다. 이 때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영어교육을 걱정하는 일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2. 1)항의 대학영어교육의 개념적 목적에서 이미 언급한 대학영어교육의 목적 중에서 시대적인 요청 등의 이유를 들어 세번째 목적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첫번째와 두번째 목적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언어는 언어 자체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사회적, 문화적, 인성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유기체인 까닭에, 첫번째와 두번째의 목적을 소홀히 한 채(또는 배제한 채) 언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대학졸업을 위한 자격요건으로서 표준화 시험

세계의 지구촌화와 인터넷 열풍,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힘입어 훌륭한 영어능력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그러한 사조가 대학 내에서도 만연해

있음을 캠퍼스 곳곳에서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물결을 타고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을 위한 자격요건으로 표준화 시험의 일정 점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소모적인 찬반론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므로, 단지 이러한 제도에 내포된 목적과 예상되는 결과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제도가 표방하고 있는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언어능력이 있는 인재를 대학에서 배출해 내겠다는 것이다. 즉, 대학영어교육 목적의 범주에 맞추어 본다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표준화 시험을 활용한다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다만 학문의 특성과, 학생들의 개인차 또는 단과대 학생들간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 점수를 정해 놓고 모든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점수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너나없이 TOEFL이나 TOEIC 책과 씨름하며 학원을 오락가락하는 일을 반복해야 할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은 분명하다. 얼른 떠오르는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각 단과대학마다 요구 점수를 달리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단과대학마다 다른 요구 점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제도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현상은 대학의 '사립학원화' 가능성이다. 즉, 많은 학생들이 표준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학교에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고, 학교는 그러한 요구를 좌시하든, 수용하든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요구를 좌시하게 되면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학생 그룹과 학교당국간의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대학에서 설강되는 영어관련 교과목

의 많은 부분이 표준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교체되거나 아니면 표준화 시험과 관련된 새로운 과목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 많은 경우에 그러한 과목들을 효과적으로 강의하기 위한 강사들이 초빙될 것이며 그들의 교육목적은 주로 학생들의 졸업과 관계되는 표준화 시험의 '점수 올리기' 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 대학영어교육의 세 가지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하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또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육이라는 대학영어교육의 세번째 목적의 흔적조차도 찾아 볼 수 없는, 점수를 올리기 위한 기법 중심의 강의나 편법 등을 부추기는 강의가 난무하게 될 수도 있다.

4. 마치는 말

어떠한 형태로든 표준화 시험이 대학영어교육에 도입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갖고 있을 줄 안다. 이 글을 통해서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원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급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무척 첨예한 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순간에 하나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을 토대로 또는 거름으로 더 다양하고, 실질적이며, 발전적인 논의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다분히 자의적이지만 다소 부정적인 결론으로 글을 이끌어

갔음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실제적인 적용에서 반드시 나타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일반적인 견지에서 일어날 현상들을 예측해 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다소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많은 실제적이고 훌륭한 논의와 연구가 나와서,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이며, 아울러 학생들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 시험이 대학영어교육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많이 강구되기를 기대해 본다.

결론적으로, 영어교육과 그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의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절대 명제로서, 평가방식은 교육과 평가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할 교육목적과,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평가목적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영**

이정원

충남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어학 석사학위, Stephen F. Austin 주립대에서 석사학위, Texas(Austin)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충남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Linguistic coding deficit hypothesis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The effect of formal instruction in English pronunciation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초등영어 교육에 대한 제언", Schallert, D. L.과 공동연구 한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L2 Language Proficiency and L1 Reading Ability to L2 Reading Performance: A test of the Threshold Hypothesis in an EFL Context" 가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현대영어 교육(공저)」이 있으며 역서로 「제2언어습득론」의 다수가 있다.